“계율, 삶·수행의 기준…이 기준 잊지말라”

해인사 보살계수계법회 해인삼매 법문

조계종 전계대화상 태허 무관 대종사

법보종찰 해인사는 10월 25~26일 경내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첫째 날인 10월 25일에는 경내 보경당에서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 대종사, 해인총림 율주 경성 스님, 율원장 금강 스님의 해인삼매 법문이 이뤄졌다. 이날 첫 법사로 나선 무관 대종사의 법문을 정리 ·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정리=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내일(10월 26일)은 보살계(菩薩戒) 수계법회가 있는 날이다. 그래서 계율과 가장 기본이 되는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오늘 해인사 부처님을 믿고 오신 보살님들은 집에서 할 일을 모두 마치고 집안 식구에게 허락받아 오셨을 것으로 생각된다. 집안의 사람을 안정시키고 믿음을 얻는 것, 그것을 불교에서는 ‘연기(緣起)’라 한다.

연기라는 말에는 ‘관계’의 의미가 담겨 있다. 가족끼리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시키는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은 오늘 법회에 오지 못했을 것이다. 제일 먼저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 관계 설정의 가장 첫 번째가 믿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해인사 보경당에 아무 탈 없이 올 수 있었던 것도 믿음 덕분이다.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치고 가족들, 타인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면 올 수 없었을 것이다. 모두들 가족들에게 믿음을 갖게 했기 때문에 오늘 오신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과 기독교의 믿음은 다르다. 불교는 깨달음을 얻어 우리가 부처님이 되는 종교다. 불교에서 믿음은 ‘신심(信心)’이라 하지 신앙이라 하지 않는다. 기독교처럼 신을 우러러 찬양하는 종교가 아니다. 같은 ‘믿을 신(信)’자 지만 차원이 다르다. 신심과 신앙 차이를 분명히 알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서로의 마음(心)을 믿고(信)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여러분이 가족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오늘 해인사 보경당에 오지 못했다. 또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자신감’이다. 그것이 불교에서 첫째가는 믿음이다.

깨달음은 불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을 믿는 데에서 깨달음이 발현된다. 그래서 자신을 믿는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을 불교에서 초발심(初發心)이라 한다. ‘나’ 자신을 믿고 마음을 내는 것이 불교의 올바른 믿음이고 깨달음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이다.

이에 불교는 신이나 절대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을 가르치는 종교다. 자신의 마음을 내고 믿으며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골자다. 무조건 신, 절대자에게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순전히 자신이 어떻게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달렸다.

〈화엄경〉에는 ‘약인욕요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라는 게송이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과거·현재·미래의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응당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말이다.

‘심불급중생(心佛及衆生)’이라는 말도 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으니, 과거·현재·미래의 마음 또는 부처님, 중생을 알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마음만 깨닫게 되면 부처님이 된다. 가사장삼을 수하든 속복을 입든 그런 것과 관계없다. 바로 마음 쓰는 데 달린 것이다.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것. 이것이 불교고 〈화엄경〉의 내용이다.

> **여러분이 보살계 수지는 이유**
> **마음 사용하는 기준 필요해서**
> **계율에는 三寶 가르침들 담겨**
> **하루 5분, 마음을 다스려보길**

그렇다면 이 마음을 바로 깨달아야 하는데, 어디다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모른다. 일단 마음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써야 할지 알아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이 없으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 기준이 바로 계율(戒律)이다. 여러분이 보살계를 받는 이유도 그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계율은 불법승 삼보(佛法僧 三寶)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이 부처님의 행이고 계율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으며, 계율을 지키고 실천해 나가는 스님이 있다. 불교의 가장 기본 가르침인 계정혜 삼학(戒定慧 三學)에도 계율의 가르침이 있지 않는가.

또한 선(善)과 불선(不善)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 계율이기도 하다. 우리는 항상 착한 일을 실천해야 한다. 하지만 계율을 모르면 착한 법과 착하지 못한 법을 가려내지 못한다. 이 계율을 마음과 머릿속에 담아내야 한다.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무관 대종사는… 1959년 출가해 1964년 향천사에서 보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2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은사는 희섭 스님.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한 무관 스님은 지관 스님 전강제자로서 승가교육에 평생을 매진했다. 해인사승가대학장, 해인사 율원장과 율주, 총무원 총무부장, 중앙종회의원, 법계위원장 등을 두루 역임하고 전계대화상으로서 불법홍포와 종풍진작에 진력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불교에는 삼세(三世)라는 말이 있다.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의미한다. 공간을 말할 때는 동서남북, 북서·남서·남동·북동, 상·하를 포함해 ‘시방세계(十方世界)’라고 부른다. 여러분은 이 시간을, 삼세를 어떻게 쓸 것인가. 과거는 이미 순간에 지나가 없어져버렸다. 지금 여러분이 해인사 보경당에 들어와 법문을 들은 지가 얼마나 됐나. 벌써 30분이란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한 순간도 그냥 있는 것이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버린다.

불교는 이런 과거를 어떻게 해석할까. 과거는 해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 설사 나쁜 생각이 나더라도 지나가는 경험일 뿐이다. 나쁜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 다짐은 할지언정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해라. 현재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삼매’라고 일컫는다. 집착은 좋지 못한 법이고 집중은 올바른 법이다. 과거에 어떤 나쁜 경험을 했든 집착하지 말라. 그것이 불교가 과거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스스로의 결정, 선택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미래도 역시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금 자신의 행동을 살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으면 내 이야기가 잘 들릴 것이고 걱정만 하고 있다면 잘 들리지 않을 것이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다.

우리들이 항상 인생의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기준이 필요하다. 바로 계율이다. 우리는 항상 선택하면서 순간순간 변화한다.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옳은 것인지 옳지 못한 것인지 판단한 뒤, 행동으로 옮긴다. 이 절차는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지나간다. 96분의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 순간, 단 96분의 1초 만에 시비(是非), 손익(損益) 판단을 해버린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판단이 문제가 되고 자연스럽게 결정 역시 잘못된다. 결과적으로는 옳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렇기에 기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항상 마음, 머릿속에 계율을 담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인생의 목적이 뭔가. 바로 행복이다. 긍정적인 생각이 도움이 되지만, 행복의 뿌리는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렸다. 마음이 안정돼야 행복하다. 불안하면 엉뚱한 생각으로 고통스럽기만 하다.

스스로가 안정을 찾으려면 마음의 평안을 꾀해야 한다. 평안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불교의 참선이다. 바로 집중하는 법이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마음을 안정시켜야 한다. 참선하는 대중은 화두에 집중하면 된다.

화두는 1700개가 있다. 그 많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화두가 바로 ‘무(無)자’ 화두다. 그런데 이 무자 화두에 의정이 안되니 수행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마음을 ‘하나’에 모아야 한다. 이 하나인 마음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 하나는 무엇인가?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마음이 모양, 색깔, 크기 등 마음 자체에 집중을 기울여야 우리 마음을 쓸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을 하나에 모으고 그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수행이다. 화두를 들고 하루 5분이라도 수행한다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화엄경〉에는 ‘찰진심념가수지 대해중수가음진 허공가량풍가계 무능진설불공덕(刹塵心念可數知 大海中水可飮盡 虛空可量風可繫 無能盡說佛功德)’이란 말이 있다. 이 지구를 모두 부숴서 먼지로 만든 것은 헤아릴 수 있어도, 허공에 있는 바람을 모두 셀 수 있을지라도,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 세계의 바닷물을 모두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여기서 마음은 부처님이다.

앞에서 말한 심불급중생, 마음과 부처님과 중생, 이 셋에는 차별이 없다.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면 중생도 헤아릴 수 없고 부처님도 헤아릴 수 없다. 불교를 믿고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마음과 중생 그리고 부처님을 ‘하나’라 했을 때 그 하나를 깨달으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하는 ‘삼매’를 성취해야 한다. 하루 5분이라도 집중해서 마음이 안정된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